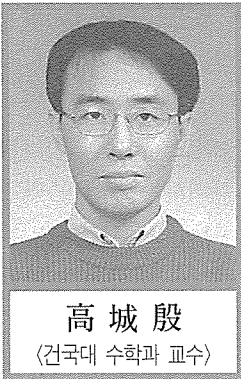


# 六十甲子の 과학적 근거



갑·을·병·정 등  
십간과  
자·축·인·묘 등  
십이지를  
결합하여 만들어보면  
갑자, 을축 등  
60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六十甲子라고  
한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이오리듬 주기가  
58년으로 나타나  
오차를 감안하면  
똑같은 바이오리듬을  
갖게 된다는  
환갑날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새해가 왔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는 말이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번 돌아서 庚辰(경진)년은 가고 辛巳(신사)년이 되었고 올해의 동물도 용에서 뱀으로 바뀌었다. 잘 알다시피, 경진, 신사 .. 하는 것을 육십갑자라고 한다. 이것은 甲(갑), 乙(을), 丙(병), 丁(정), 戊(무), 己(기), 庚(경), 辛(신), 壬(임), 癸(계)의 십간과 열두 가지의 띠를 나타내는 子(자), 丑(축), 寅(인), 卯(묘), 辰(진), 巳(사), 午(오), 未(미), 申(신), 酉(유), 戌(술), 亥(해)의 십이지를 결합하여 쌍을 만든 것을 말한다. 앞에는 십간 중의 하나, 뒤에는 십이지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경진, 신사와 같이 만들어보면 모두 60가지가 있고, 그래서 육십갑자라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이 십간 십이지를 이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측정하거나 헤아리는데 사용하였다. 원래 이 육십갑자는 주역의 음양오행설을 설명할 때 오행의 변화를 표시하는 글자로서 우주의 생성과 순환, 변화를 십간 십이지로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니 이를 사용한 사주팔자를 갖고 점을 쳐 보는 것도 이해는 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과학을 하는 사람이 정초부터 무슨 점괘이야기냐고 하시겠지만, 이러한 육십갑자가 우리나라 역사의 유명한 사건의 연대를 기억하는데 꽤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놀랄지 모르겠다. 그것은 육십갑자를 만드는 규칙을 안다면 쉽게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 규칙이란 먼저,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앞 글자와 뒷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

까 뒷 글자 '자'는 십이년마다 되풀이되지만 앞 글자 '갑'은 십년마다 되풀이되게 된다. 올해가 신사년이고 서기로 2001년이므로 신자로 시작하는 해는 모두 끝자리수가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갑'자로 시작하는 해는 그 끝자리의 수가 4, '을'자로 시작하는 해는 끝자리의 수가 5,.. 이렇게 된다. 실제로 몇 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갑신정변 : 1884년, 갑오농민전쟁 : 1894년  
을미사변 : 1895년, 을사보호조약 : 1905년  
병자호란 : 1636년, 병인양요 : 1866년.....  
임진왜란 : 1592년, 임오군란 : 1882년

그러므로 그 사건이 일어난 시대상황을 어느 정도 알면, 십년 단위의 사건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초에 육십갑자를 이용하여 점을 쳐 보는 사람이라면 매일 아침마다 바이오리듬을 알아 보아, 그 날의 몸상태를 알아볼 지도 모르겠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날의 바이오리듬을 알아 볼 수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리듬, 감성리듬, 지성리듬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주기는 각각 23일, 28일, 33일 정도라고 한다. 이 이론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신체리듬, 감성리듬, 지성리듬이 모두 똑같아지는 날은 23과 28, 33의 최소공배수인 21252가 지나서인데 이는 대략 58년 뒤이다. 세가지 리듬의 주기의 오차를 염두에 둔다면, 결국 거의 환갑날에 똑같은 바이오리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니 육십갑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㉟